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농학자

최 경 석

朴 星 來 (한국외대 인문대학장 / 과학사)

서양 근대농법에 대한 관심은 1883년 처음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던 조선의 사신 일행이 미국 시찰에서 미국의 선진 농업기술에 크게 감명을 받고 그것을 하루 속히 배우기로 결심했던 때부터이다.

셀러리 재배, 궁궐에 공급

바로 이 미국 근대 농업기술의 도입에 전력을 기울이다가 일생을 마친 선각자가 바로 그 일행의 한사람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농학자 최경석(崔景錫? ~1886)이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농업시험장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을 만들어 처음으로 서양의 농작물들을 상당한 규모로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 셀러드로 많이 사용되는 셀러리를 길러 궁궐과 서양 사람들에게 공급한 사람이 바로 최경석이었다. 지금부터 1백10여년전인 1884년 봄에 이미 서양식 농산물 재배에 성공했던 그 기세를 몰아 미국에서 가축을 수입해서 앞으로는 치즈와 버터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초로 서양의 근대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있던 최경석의 노력은

1886년 봄 그의 갑작스런 병사(病死)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려 갑자기 죽었는가, 또 왜 한사람의 지도자의 죽음이 근대 농업기술의 도입 그 자체를 중단시키게 된 것인지도 분명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우선 최경석이란 사람의 개인에 대해 거의 아는게 없다. 다만 그는 미국 사절단에 끼어 미국에 가기 전에 몇 가지 별로 높지 않은 무관(武官)으로서의 관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최경석은 1883년(고종 20년) 5월 훈련원 주부(注簿)로 복직하고, 곧 6월에는 보빙사(報聘使) 민영익(閔泳翼)의 종사관에 임명되어 미국 사신 일행에 끼게 된다.

美의 농업기술에 감명

1882년 처음으로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은 조선왕조는 1883년 늦은 봄 첫 주한미국사절로 후트공사가 부임해 오자 이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이다. 여기 전권대신으로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민비(閔妃)의 조카로 촉망받던 24세 청년 민영익이 선발

되었으며, 부대신으로는 28세의 홍영식(洪英植), 종사관에는 25세의 서광범(徐光範)이 선발되었다. 이들을 수행하는 일행으로 최경석이 선발되었던 것이다. 역시 함께 선발된 일행에는 28세의 유길준(兪吉濬), 23세의 변수(邊綏)가 포함되었고 고영철(高永喆)과 현홍택(玄興澤) 등도 들어 있었다.

한국인 8명을 일행으로 한 최초의 미국사절단은 모두 30이 안된 젊은이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직 최경석의 출생연도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의 나이 역시 20대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1886년 봄에 그가 병사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을 넘기지도 못했을 정도의 젊은이가 아니었을까?

1883년 9월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보빙사 일행은 기차로 갈아타고 9월 15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9월18일 이들은 체스터 아더 미국대통령을 만나 국서를 전달함으로써 공식적인 절차를 마쳤다. 그들에게 크게 감동을 준 것은 미국 사회의 발달한 근대문명과 그 밑을 바쳐주고 있는 과학기술이었다. 이후 계속된 시찰을 통해 조선의 지식인들은 특히 농업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미국의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다.

보스턴박람회도 구경

9월19일 보스턴에 도착한 일행은 20일 호텔 주인인 월코트(Walcott)대령의 초대로 그의 농장을 구경하게 된다. 당시 그 지역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1883년 가을, 최초의 사절단으로 訪美...「溫室농법」 익혀

인 일행은 온실 재배에 큰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축 사료를 만들어 높은 저장탑에 보관하는 것에도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 일행 가운데에서도 '육군대령이며 식물학자인 수행원'이 농사기술에 관심을 크게 나타냈다고 당시 미국 언론에는 보도되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최경석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표였던 민영익 역시 농업기술에 관심을 보여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인 농업기술자의 파견을 요청했고, 마침 그때 보스턴에서는 박람회(박람회를 구경하고 크게 감명을 받아 민영익은 이듬해 가을에는 서울에서 박람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일까지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박람회는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여름 대전에서 열린 「엑스포 '93」은 바로 그때 그 정신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대문 밖에 농장세워

최경석은 귀국후 임금에게 보고하는 가운데 근대식 농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임금으로부터 나라의 땅을 하사받아 이듬해에 이미 「농무목축시험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는 최경석이 임명되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농장겸 목장이었고 또 근대식 농업연구소였던 「농무목축시험장」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설치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성주보」 1886년 2월15일자에

의하면 그 농장은 '남대문 밖'이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들 일행이 미국에서 주문해 놓았던 미국 농산물 씨앗은 1884년 초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개화사상을 갖고 있던 청년지도자 윤치호(尹致昊)가 남긴 일기에는 1884년 1월 26일 오후에 자기는 로웰(P. Lowell), 최미산(崔微山) 등과 함께 화계사에 놀러갔다가 다음날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 나오는 '미산'이란 최경석의 호(號)인데 최경석이 윤치호와와 교분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55년 보스턴의 명문집안 출신으로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로웰은 그해 겨울을 서울에서 지낸 다음 일본에 돌아가 10년을 머물고 미국으로 귀국했으며, 당시의 경험을 책으로 남겼으니, 그것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조선」(Chosen, the Land of Morning Calm, 1888)이다. 미국에 돌아간 다음 그는 자기 재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콜로라도에 대규모 천문대를 세워 천문학 연구에 몰두하여 미국의 대표적 천문학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여하튼 1884년 초의 「농무목축시험장」은 아주 활기있게 봄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미국에서 미리 주문해 놓았던 농기구와 씨앗은 18꾸러미로 도착했는데 저울, 보습, 쇠스랑에다가 심고, 떨고, 베는 기계까지 온갖 것들이 들어 있었다.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값은 7백51달러33센트...지금의 환율로는 불과 60만원도 되

지 않는 작은 액수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돈이었을 터이다.

양배추 등 344종 재배

정말 놀라운 일은 최경석은 이 농장에서 첫해에 이미 3백44종의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처음 길러보는 서양작물로 캐비지를 '양배추'로 표기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들 작물은 바로 1884년에 처음 이땅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확한 농산물을 최경석은 전국 3백5개 지역에 종자로 공급했고, 생산물은 궁궐과 외국인들에게 공급되었다. 또 첫해에는 돼지 64마리뿐이던 목장에도 1885년에는 미국에서 소, 말, 돼지, 양 등이 도착하여 최경석의 야망은 점차 무엇인가 크게 성공할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886년 봄 그의 죽음과 함께 최경석의 꿈도 사그러져 버렸다. 미국이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근대식 농업기술자는 결국 오지 않았고 최경석의 농장은 그의 죽음과 함께 격하되어 1886년 가을부터 농무사(農務司)의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슬그머니 그 존재가 희미해져 버렸다.

최경석은 우리 농업기술사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1883년부터 1886년 봄 그의 죽음까지의 극히 짧은 기간의 활동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앞으로 그의 생애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ST**

高宗에 근대농장 건의...최초의 「農務牧畜시험장」 설립